

수협의 모럴 해저드, 직원 9% 역대 연봉자

사업부실로 1조 1581억원 공적자금 지원 받아... 127억원만 상환 2013년 비교 75% 급증

어민을 위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중앙회(수협) 소속 직원 가운데 역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과 비교해 75%나 급증한 것이다.

수협은 지난 2001년 4월 수협신용부문의 부실화에 따라 정부로부터 총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127억원만 상환한 수협이 역대 연봉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수협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총 115명으로 급여총액만 126억56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역대연봉 인원은 40명으로, 급여총액 42억8400만원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해 75%나 급증했다.

연도별로 역대연봉자는 ▲2013년 40명 ▲2014년 57명 ▲2015년 69명 ▲2016년 11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급별 역대연봉자 인원을 보면 ▲별급 25명 ▲1급 86명 ▲2급 4명 등이다.

연도별로 급여총액도 ▲2013년(42억8400만원) ▲2014년(61억3400만원) ▲2015년(74억5900만원) ▲2016년 126억56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무려 3배 가량 늘었고, 전년대비해서도 1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급여총액이 수협의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6.6%(43억)에서 지난해에는 15.7%(12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회장과 대표이사, 감사위원장이 각각 연봉이 1억6800만원에 달하고, 수협회장의 경우는 2013년 대비 연봉이 26% 가량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협의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연봉을 보면 ▲별급 1억 1240만원 ▲1급 9967만원이다.

반면, 수협의 정규직 평균연봉 대비 비정규직 연봉을 비교해 보면 비정규

직의 경우 2015년 4440만원에서 지난해에 4357만원으로 오히려 1.9% 가량 줄어 들었다.

한편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실제 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1억6800만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임무추진비가 예산액 기준으로 매년 72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또한 월 240만원의 임차료와 연간 1500~2000만원 정도의 차량운영비가 소요되는 고급세단(에쿠스)을 제공받고 있다.

수협회장의 운전전담 직원의 인건비 총액만 지난해 기준으로 7800만원에 달한다.

2013년에 비해 16.4%(1100만원)나 증액됐다. 운전전담 직원의 연봉을 공무원 기준으로 따지면 4급 서기관 수준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또 수협중앙회장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면적 143.3㎡, 보증금 7억 5000만원짜리 사택도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이같은 각종 지원혜택은 조단위 이

상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임원에 대한 지원치고는 과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월세와 다른없는 1조158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가 지난해까지 전체 상환대상액의 0.1%에 불과한 127억원만 겨우 상환한 상태에서 임원진은 물론 일반직원들이 당기순이익 흑자 기록에 취해서 돈잔치를 벌여서는 안된다"며 "이는 어휘량 감소와 어가부채 누증 등에 시달리는 조합원인 어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적자금을 쥐꼬리 만큼 상환해 놓고 계속해서 과도한 혜택받는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직원들이 제 밥 그릇 챙기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고, 안정적인 경영수지 개선과 공적자금의 상환액을 더 늘리고 나서 임직원들의 급여와 후생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국내 종자기업 세계 시장으로 한걸음 도약할 때”

김영록 장관, 종자박람회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우리 종자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한걸음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북 김제 민간육종 연구단지에서 열린 ‘제1회 국제종자 박람회 개막식’에서 “종자산업은 바이오에너지·제약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종자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 분야 국내 유일의 산업박람회다. 국내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종자산업에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처음 개최했다.

첫 박람회의 주제는 ‘미래를 품은 씨앗’으로 정했다. 종자가 농업 분야에서 21세기 패러다임을 유도하는 산업이란 뜻이 담겨 있다.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열리며 국내외 30여개 기업이 참여해 최대 30억원의 거래 실적을 올릴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뉴스

경제성장률 3% 달성 가능성 커

고용·내수 등 국민 체감지표와는 괴리 지적

우리경제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연간 3%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급증과 새 정부 들어 추경을 통한 돈 풀기가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용과 소비 등 내수지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해 성장률이 국민 체감지표와는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기업이 이르고 있는 수출 고공행진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약해진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상당수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가계 부채에 발목 잡힌 소비자들은 씹쓸이를 늘리지 못하고 있고, 저물가 속에서도 장바구니 물가는 민면치 않아 경기가 좋아졌다는 인식은 낮은 실정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 7~9월까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4% 성장했다.

2010년 2분기(1.7%) 이후 7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별 성장률이다. 지난해와 1%라는 시장 예상을 상회해 ‘깜짝 성장률’이란 말도 나온다.

올해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 1.1%를 기록한 뒤 2분기 0.6%를 기록했다. 4분기에 ‘제로(0%) 성장’을 하더라도 연 3% 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첫째 목표인 3% 성장률이 일찌감치 현실이 되면서 정부로서는 한걸음 여유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리경제 상황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고용과 소비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은 ‘깜짝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소비자 조정을 받는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민간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고, 8월에는 1.0%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3분기 소비는 정부 소비가 확대된 반면 민간 소비는 주춤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으로 정부 소비는 2.3% 늘어났지만, 민간소비는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수의 또 한 축인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가 더디다. 지난 7월 전월보다 0.6% 증가했지만, 8월에는 0.1% 늘는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위축됐다.

최근 고용지표는 좋지 않다. 3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1930명 증가했다. 지난 1분기(36만100명)와 2분기(36만1670명)에는 증가폭이 30만명을 넘었지만, 3분기에는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증가폭도 2013년 1분기(25만7400명) 이래 가장 작다.

이 기간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떨어졌지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9.3%로 1년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분기 들어 체감실업률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지표로 활용되는 고용보조지표3은 10.9%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2.2%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올랐다. /뉴스



겨울철 화재대비 소방 경진대회 실시

롯데백 전주점, 옥상공원서... 소화전 이용 화재현장 진압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6일 백화점 옥상공원에서 겨울철 화재 대비를 위한 ‘2017년 소방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소방 경진대회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통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에게 화재의 위험성을 알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초기 진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백화점 영업부서와

비 영업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총 3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최초 발견자의 신고를 시작으로 소화기 조작, 고객 대피 유도, 인명구조,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현장 진압 등 실전을 반복해 하는 다양한 화재현황 시범을 선보였다.

대회에서는 가장 우수한 화재 훈련을 펼친 남성·여성 패선 영업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뉴스

중소벤처기업청, 중기 장기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26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근로자(무주택 세대 구성원)를 대상으로 전주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이번 특별공급 주택위치는 전주 효천지구 A-4블록이며,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총 69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로자이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는 11월9일까지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

무주군, ‘꿈 job go 일자리 job go’ 창업설명회 개최

‘꿈 job go, 일자리 job go’ 무주군 창업설명회가 26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201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무주군민 5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 컨

설팅을 받았다.

컨설팅은 전북도 공시제 컨설팅 기관인 (사)캠빅종합기술원에서 맡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안내를 받고 창업사례와 신규 사업 아이템 등을 공유했다.

무주군은 앞으로 군청 앞(구)관광안내소 자리에 창업 상담창구를 마련해 상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